

해남~진도 ‘울돌목 해상 케이블카’ 월말 개통



해남과 진도를 잇는 울돌목 해상케이블카가 11일 시험 운행에 한창이다. 총 길이 960m의 해상 케이블은 해남 우수영 관광지와 진도 녹진타워를 오가는 노선으로 10인승 곤돌라 26대가 운영되며 8월 말에 개통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코로나 2000명 돌파...전국 ‘초비상’

여름 휴가철 후폭풍에 광복절 연휴 겹쳐 확산 최대 고비 광주·전남 지자체, 타지역 접촉 감염 방지 최선 다해야

국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지난해 1월 초 발병 이후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 사태가 비상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관련기사 2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당장 이번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사흘간의 광복절 월휴가 연휴가 예정돼 있어 코로나 19가 지방 곳곳까지 전방위로 확산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쌓인 방역 피로도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까지 맞물리면서, 이번 광복절 연휴가 코로나 19 대확산과 안정화를 가르는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전남도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10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2223명 발생했다. 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이후 1년 6개월여만이다. 이로써 국내 누적 확진자는 21만 6206명이 됐다. 전남 1540명보다 683명이 늘면서 단숨에 2200명대로 직행했다. 직전 최다인 지난 달 28일의 1895명보다도 328명 많은 것으로 2주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지역별 발생 2145명, 해외유입 78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661명, 경기 666명, 인천 112명 등 1439명(64.73%)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비수도권에서는 784명(35.27%) 나왔는데 경남 141명, 부산 126명 등 영남권에 집중됐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20명, 18명이 나왔다. 광주에서는 11일 오후 5시까지 15명, 전남에서는 24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로 나와 누적 확진자는 광주 3614명, 전남은 2235명이 됐다. 광주시와 전남도 방역당국은 코로나 19 지역 감염세가 수도권과 같은 폭발적 확산세는 아니지만 한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전파력이 센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유행인 데다 휴가철을 맞아 시민 이동과 접촉이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특성상 한순간 방심한 틈을 타고 바이러스가 검출을 수 없이 일순간 퍼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전남도가 최근 2주간 발생한 확진자 228명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86명(38.15%)은 타지역 방문 또는 타지역 방문자 접

촉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델타 바이러스 유행 이후, 전남에서는 서울 소재 관광 컨설팅 업체 관련해서 100명 가까운 확진자가 여수를 중심으로 발생했고, 진도에서는 최근 카페를 매개로 30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단시간에 발생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역대 최대 확진자 발생 상황에서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지는 연휴가 예정돼 있는 점도 큰 부담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시민 방역의식이 느슨해진 상황에서 맞이하는 사흘간의 황금연휴 동안 코로나 19 확산 가능성이 ‘7말 8초’ 못지않게 크기 때문이다. 광주와 전남지역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이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면서 3단계 거리두기 체제로서 상대적으로 모임과 관광 등이 용이한 광주와 전남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풍선 효과’도 걱정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델타 변이바이러스 유행 상황에서 7말 8초 여름휴가 후폭풍이 최소 2주는 이어지고 있다. 14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광복절 연휴가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타지역 방문과 타지역 거주자 접촉을 최대한 삼가고 지역 내에서도 이동과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갖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돌고돌아 소송전 가나

광주시-서진건설 협의 종결 사업 진행 민선 8기에나 가능

광주시 대표 장기 미해결 현안 사업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돌고 돌아 결국 또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에선 인구 140만명이 넘는 도시에 특급호텔 한 곳이 없고, 미래 관광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결국 민선 7기를 넘어 민선 8기에나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선 최근 광주시가 4조원대 평동 준공임지역 개발사업 협상을 종료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 계획안 결정을 1년 넘게 질질 끄는 등 유독 민간투자 관련 사업에 대해 소극적이고 기존 계획을 뒤집는 행정을 반복하면서, 자칫 투자유치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서진건설은 지난 10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협의를 최종 종료했다. 광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배제됐다가 소송 끝에 권한을 회복한 서진건설과 총사업비 범위를 놓고 기획재정부에 협의하고 회신까지 받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광주시는 안정적 사업 추진을 담보하는 협약이행 보증금으로 호텔컨리프 등을 모두 포함한 총사업비 4800억원의 10%인 480억원을 요구한 반면 서진건설은 사회기반시설 사업비인 200억원을 기준으로 삼아 10%인 20억원을 고수하고 있다. 협약이행 보증금을 결정하는 총사업비 기준이

4800억원과 200억원으로, 무려 4600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에 대한 질의를 받은 기재부는 지난 6월 총사업비의 범위에 대한 회신에서 “사회기반시설 관련 민간투자법에서 총사업비는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므로,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총사업비·부대사업 범위에 대해 주무관청(광주시)과 사업시행자(서진건설) 등이 공모지침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일단 총사업비 범위에 대한 사실상 서진측의 주장을 수용하면서도, 부대사업 범위 등에 대해서는 광주시의 판단이 필요하며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으로 해석된다.

광주시와 서진측은 기재부의 회신내용을 놓고 그동안 수차례 만나 협의에 나섰지만, 기존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와 서진이 주장하는 간극이 너무 크다”면서 “지난 10일 협의 종료를 선언한 만큼 추가 협의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진측 관계자는 “기재부 답변을 보면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도, 광주시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양측 최고 결정권자의 만남 또는 기재부 질의에 대한 타 기관 해석 질의 등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거절 당했다. 아직까지 사업 추진 의지가 확고한 만큼 법적 소송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새 대법관 후보 오경미...女대법관 4명으로 늘어

대법관 직행 첫 현직 판사

다음달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오경미(52·사진·사법연수원 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대법원은 1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신임 대법관 후보 3명 가운데 오 판사의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오 판사는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지,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자질을 갖췄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폭넓은 법률 지식 등을 겸비했다”고 밝혔다. 오 판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13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박정화·민우숙·노정희 등 3명이다.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 대법대를 졸업한 오 판사는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특히 오 판사는 고법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고 대법관에 오르는 첫 현직 판사가 된다.

오 판사는 학내 집단 따돌림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주목을 받았다.

/연합뉴스

오토바이 굉음에 잠 설치는 시민들	▶6면
메시, PSG 입단, 등번호 30번 달았다	▶18면
신 팔도명물 - 여름 보양식 여수 갯장어	▶2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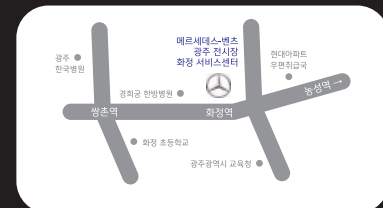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EQA

This is for a new generation.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 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확장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동대로 1041(회원동)
MB 인종출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광명대로 516(수환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역동대로 603(반월 20(소문동))
주안 서비스센터 (062)94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동대로 520(수환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동력
EQA 250 4MATIC 복합 연비(전기+km/kWh) : 4.1(도상 4.3, 고속도로 : 3.9) 1회 충전거리(km) : 306, 공차중량(kg) : 66.5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